

## 한방지역축제의 역사성 고찰

<sup>1</sup>송재민, <sup>1</sup>도미자, <sup>2</sup>안상우, <sup>3</sup>정지호, <sup>1</sup>김남일

<sup>1</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up>2</sup>한국한의학연구원, <sup>3</sup>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 Review on History of Local Medicinal Herb Festival

<sup>1</sup>Jae-Min Song, <sup>1</sup>Mi-ja Do, <sup>2</sup>Sang-Woo Ahn, <sup>3</sup>Ji-Ho Jung, <sup>1</sup>Namil Kim

<sup>1</sup>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2</sup>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p>3</sup>Dept. of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 Local medicinal herb festivals present the history of the Korean medicine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region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ttracting tourists, vitalizing local economy, and improving the local im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festival and grasp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 of local medicinal herb festivals.

Methods : I compared the books and articles presented in the reference list.

Results & Conclusions : Local medicinal herb festivals originates from traditional *yangnyeongsi*. Since the 17<sup>th</sup> century, *yangnyeongsi* has grown up as a special market.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 Act* promoted commodity and monetary economy that helped commerce and industry develop and market grow up. It also made changes in the social status system and *yangnyeongsi* has been such a historical phenomenon appeared in this social background. The growth of *yangnyeongsi* contributed to the progress in the private medicine that triggered the gradual transfer of power in the medicine to the private sector which has long been held by the government.

In *yangnyeongsi*, there were many cultural events to attract visitors. It's the same case in China that preserves stages that were used for cultural events in the medicine market to pass down the historic sites while those in Korea are disappearing as *yangnyeongsis* are being pulled out of the city areas to the suburban areas due to the redevelopment projects. For this reason, restoration of the place for traditional *yangnyeongsi*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rough local medicinal herb festivals.

Key words : Local medicinal herb festival, Korean medicine, History

## I. 서론

축제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된 인간의 생활양식 중 하나이다.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욕망을 표현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왔다.

축제(祝祭)의 전통적인 의미는 유희성과 종교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축제의 의미가 축하와 즐거움의 자리임과 동시에 신에 대한 제의와 기원의 자리임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초월적 존재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행복과 운명을 결정하는 신과의 교류는 고대사회에서 그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기후와 자연재해, 질병과 생명을 신이 주관하는 것으로 믿은 고대인에게 신과의 단절은 공포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기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신과의 단절을 극복하는 집단적 의례를 펼친 것이다.

이러한 축제는 동시에 놀이적 성격을 가진다. 초월적 존재인 신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축제는 일탈이 용인되는 자리였다. 호이징아<sup>1)</sup>는 제의와 놀이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sup>2)</sup> 무엇인가에 몰입

접수 ▶ 2015년 05월 18일 수정 ▶ 2015년 11월 27일 채택 ▶ 2015년 11월 27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1) 네덜란드 역사학자로 인간에 대한 종래의 정칙인 생각하는 인간(Homosapiens), 제작하는 인간(Homo faber)과 대비되는 놀이하는 인간(Homoludens)을 제시하였다.

하는 사람은 성스러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몰입해서 하는 놀이는 노동보다 더 진지한 것이 되고 우위에 있는 것이 된다. 그는 이렇게 놀이의 진지성과 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sup>3)</sup> 물론 놀이의 진지함과 제의의 진지함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축제의 원형을 생각할 때,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과 놀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게 해 준다.

축제는 지금도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축제가 존재한다. 축제는 놀이와 제사가 공존하는 공간인데 한방지역축제는 축제의 원형, 즉 제의와 놀이가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표현한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고대인들이 축제를 통해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제의와 놀이에 몰입한 것처럼 한방지역축제에 모이는 사람들 또한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축제에 참가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한방지역축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역사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한방지역축제의 전통이 전통 약령시의 문화 활동에서 비롯된 것에 착안하여 문헌연구 및 전통 약령시 관련 자료를 통해서 한방지역축제의 역사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sup>4)</sup>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명, 청 시대의 약시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조선시대 약령시 문화를 통해 한방지역축제의 역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통해 한방지역축제의 정체성과 목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방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주된 내용은 축제의 서비스 품질과 방문객 만족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 주로 경영과 관광에 관한 것이었고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그 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심규원, 이주희는 대구약령시 한방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의 서비스 품질이 방문객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sup>5)</sup> 신창렬은 2010년에 개최된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사례로 축제 품질과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였다.<sup>6)</sup> 김현철, 홍경완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감정의 인지적 평가모형에서 관여수준의 역할을 연구하였다.<sup>7)</sup>

방문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최승국은 제천 한방관광축제 참가자 만족도를 연구하였고<sup>8)</sup> 이선경, 윤세남은 축제 방문객의 체험 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9)</sup> 정우철은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대상으로 지역 축제에서 이해관계자간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sup>10)</sup>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축제의 전체적인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영적 관점의 연구로, 장은경은 캐릭터 마케팅을 활용한 한방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고<sup>11)</sup> 김귀자, 이선경은 대구한방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한방축제의 장소마케팅이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sup>12)</sup> 송학준 외는 201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중심으로 한방의료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sup>13)</sup>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1999년부터 매년 발간하여 지역축제의 만족도부터 향후 개선방안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sup>14)</sup> 윤운세, 정성

2) 제의, 주술, 기도식, 성찬식, 密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모두 놀이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제의를 놀이라고 특정짓는다고 해서 잘못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국원, 「대중예술의 통합적 비평을 위한 접근」, 철학논집, 2005;10:137.

3) 한 공동체가 종교 의식을 행하고 경험할 때의 심적 태도는 고귀하고 성스러울 정도로 진지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발적이고 진정한 놀이도 역시 완전히 진지하다. 김기정, 「문화유물론을 통해 본 호이징아 놀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38.

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공식 사이트에는 한방문화축제의 유래를 조선시대 약령시 개장행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고 있다. 안상우는 장구한 제천약령시의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져 다양한 한의학 유산과 결합하여 제천의 문화관광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천시 지역 한방문화축제의 역사적, 문화적 원형으로서 제천약령시를 역설하였다. 안상우, 「제천약령시 전통과 의약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9;12(2):306.

5) 심규원, 이주희,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객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 약령시 한방축제를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0;14(1):31-39.

6) 신창렬, 송학준, 이충기, 「축제 품질, 축제 주제 인식, 지각된 가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사례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2(7):346-362.

7) 김현철, 홍경완, 「축제 감정의 인지적 평가모형에서 관여수준의 역할」, 관광연구, 2007;22(3):143-162.

8) 최승국, 「지역관광축제 참가자 만족도 연구-제천한방축제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2006;2(1):55-70.

9) 이선경, 윤세남, 「축제 방문객의 체험동기가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한방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컨벤션 연구, 2013;35:85-101.

10) 정우철, 「지역축제에서의 이해관계자간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 분석 - 대구 약령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010;25(1):327-347.

11) 장은경, 「캐릭터 마케팅을 활용한 한방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2;10:216-228.

12) 김귀자, 이선경, 「한방축제의 장소마케팅이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방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컨벤션 연구, 2013;(34):137-158.

13) 송학준, 문지효, 최상수, 이충기, 「한방의료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 연구, 2013;22(3): 221-233.

화는 한약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유형적으로 유사한 5가지 축제를 비교하며 외지인보다 지역민의 참여에 그치고 관주도와 전문가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약선 골목을 조성하고 명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sup>15)</sup>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방축제의 지역별, 유형별, 시기별, 기간별, 예산별, 주제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축제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대부분이 한약관련 주제로 축제가 개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6)</sup>

한의학 역사,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안상우의 제천약령시 전통과 의약문화 연구와<sup>17)</sup>, 산청의 류의태 설화를 분석적으로 다룬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류의태의 자취 연구<sup>18)</sup>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적 의미<sup>19)</sup>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방축제에 대한 종래의 연구동향은 관광과 경영의 관점에서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지역축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역사성을 고찰하고자 중국 명, 청대의 약시문화와 조선시대의 약령시 문화를 검토하고 한방지역축제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한방지역축제가 정체성과 독창성을 발휘하고 역사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본론

### 1. 중국 명, 淸 시대의 藥市 문화<sup>20)</sup>

14) 이 보고서에 한방지역축제는 산청한방약초 축제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도에 개최된 축제를 평가한 2014년 보고서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외지관광객 점유율이 21.9%에 그치고 방문객의 소비지출이 평균의 40%수준인 19,502원에 그쳐 대중의 호기심 및 구매 욕구를 자극할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것과 한방관련 새로운 상품구성은 호평을 받았다. 산청한방약초 축제는 외지관광객이 92.2%로 높은 편이나 만족도는 비교적 낮아 재미와 다양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방문객 소비지출은 93,377원으로 높은 편이나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3년도는 산청전통의약엑스포와 함께 진행되어 축제 완성도가 높았으나 장소에 대한 현장 안내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5) 윤용세, 정성화, 「한약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2013;13(2):21-28.

16) 박상영, 안상영, 권오민, 한창현, 「한의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현황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15(1):49-54.

17) 안상우, 「제천약령시 전통과 의약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9;12(2):271-311.

18) 구원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류의태의 자취 연구」, 영남학. 2009;16:379-415.

19) 구원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한국사학회지. 2010;23(1):11-22.

20) 중국의 약시 연구에 관해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민호 박사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중국사에서 하나의 전환기로 인식되는 명, 청대 약시의 변화와 발전상을 당시의 경제,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민간 의약업의 성장과 상인들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인 연구를 하였다.

21) 조영현, 「大運河와 徽州商人-明末, 淸初 進, 揚 地域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2) 이민호, 「명 중기 민간 의약업의 성장과 '棄儒爲醫」, 중국사연구. 2008;55:146.

### 1) 藥市의 발생배경

중국사에서 명 중기부터 명, 청 교체기에 이르는 기간은 하나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는 양명학이 양자강 중하류의 경제 선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서구의 사상과 학문도 유입되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資本主義 萌芽라 불릴 정도로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이후 京抗 대운하를 정비함으로써 유통업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sup>21)</sup>

명 中期의 변화는 의약업에도 영향을 미쳐, 상업의 활성화에 따라 전문적인 약재 상인들이 출현하였고 인쇄 출판업의 성장으로 의약관련 출판물이 대량 편찬되었다. 이 시기 서양의학이 처음으로 중국에 전해졌는데 서양의학의 영향으로 人痘接種術이 발명되었고 수공업에 의한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가 활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과, 외과, 부인과 등 임상 각 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전문병원과 전문의서가 생겨났다. 기존의 관영 藥業이 점차 쇠퇴하고 민영 藥業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sup>22)</sup>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이 명 中期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농경사회의 전통 경제체제는 흔들리게 되었고 주로 재배하는 작물도 주곡 작물에서 경제성이 좋은 상품 작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일종의 상품 작물인 약재도 이 시기에 각광받게 되었고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농촌지역의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專業市鎮이 등장하였다. 농가에서 재배한 상품 작물은 그대로 상품이 되어 시장으로 팔려 나가는데 강남에는 구역간의 상품교환이 활발해지고 수많은 시장들이 개설되어 상품집산지로서의 시진들이 형성되었다. 시장에는 중개상인들이 나타나 농민들의 상품을 중간에서 사들이고 이를 다시 외지에서 온 객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시장은 경제유통에 따라 상품의 집산지로서 규모가 큰 시진으로 성장하였다.<sup>23)</sup> 이 시기 藥材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업약시가 출현하였는데 약재라는 상품의 특수성<sup>24)</sup> 때문에 항상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에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부터 전국적인 약재 교역시장으로 성장한 곳으로 祁州, 禹州, 白泉, 樟樹 등이 있다.

## 2) 專業藥市의 성장

明 中期 약재상의 활약과 더불어 의약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傳統藥市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이 당시 전국규모의 專業市鎮로 성장한 祁州(현 河北 安國市)는 화북 평원 중부의 南北驛道상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라 여겨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兵亂이 많았고 왕조 교체기와 더불어 명칭도 자주 변화하였다. 祁州에는 명대 이전에도 廟會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형태의 정기 약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廟會의 역사는 당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송, 원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다가 소상품 생산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명 중기 이래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祁州에서 약시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sup>25)</sup> 첫째, 수도인 북경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북경은 명 중기 이후 최대의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황실을 포함한 지배층은 물론이고 명조 정부의 徒民政策으로 북경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건강을 위한 약재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다. 둘째,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永樂年間に 수도를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경제 선진지역인 강남과 수도인 북경, 그리고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대운하 연변에 상업 도시들이 출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셋째, 기주 지역에서는 수십 종의 약재가 생산되는 등 약재가 풍부하였다. 넷째, 기주 지

역에서는 명대부터 의학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네 가지 이유 외에 기주가 전국적인 규모의 약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병자를 치료하는 신령한 기운 곧 '藥王'이 존재한다는 전설과 '藥王廟' 설화이다. 祁州에서는 1년에 두 차례 藥王廟會가 개최되었는데 봄에는 청명에서 단오절까지, 겨울에는 음력 12월 8일부터 정월까지 지속되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신령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이곳에 와 신령에게 기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약재를 팔기 위한 약재상들이 몰려들면서 약시가 형성되었다. 결국 기주지역에서 약시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에 질병을 치료하는 신령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sup>26)</sup> 청중기에 이르러 康熙年間(1662~1722)부터 清末, 民國初까지는 전통 중국 약업의 전성기로 평가된다. 이때에는 四大藥都<sup>27)</sup> 또는 十大藥市<sup>28)</sup>로 불리는 전업약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이들 약시를 배경으로 한 약상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up>29)</sup>

조선의 약령시와 명, 청대 약시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첫째, 시장경제와 화폐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조선은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의 폐단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생산동기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약재와 같은 특산품들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시장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명, 청대의 약시도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으로 성장하게 된다. 주곡 작물 위주로 농사를 하던 경제체제가 변하였고 상품성 있는 상품 작물로 옮겨가게 되었다. 약재는 특용작물로 취급받았는데 이 시기에 많은 재배가 이루어졌다. 둘째, 출판술의 발달로 의학 서적이 많이 편찬되었다. 약재는 지식 상품이다. 음식과 달리 약재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약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조선의 출판술은 중기 이후가 되면 더욱 빛을 발하여 의방유취, 동의보감 등 우수한 의서를 편찬하

23) 김종박. 「明, 淸 시기 농촌경제와 市鎮」. 詳明史學. 2006:16:417.

24) 약재는 일반 물품과 달리 약재 전문가가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했고 쉽게 변질될 수 있어 특별한 공간과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물품이라 귀히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도 특별 관리의 이유라 할 수 있다.

25) 약재가 祁州에 들어오지 않으면 약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祁州의 약업과 포제기술은 유명하다.

26) 祁州가 專業市鎮으로 성장한 데에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교통 등 지리적인 요인보다 전설이라는 문화적인 요인이 시장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기주 지역이 약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藥王廟 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 北京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해 있고, 水路를 통해 직접 大運河에 연결되는 등 교통이 편리하며, 藥材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전국 규모 약재 시장 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민호, 안상우. 「明, 淸代 祁州藥市의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 2009;24(4):32-34.

27) 四大藥市로는 河北 安國, 江西 樟樹, 河南 白泉과 禹州를 말하는데 일치된 결론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28) 十大藥市는 4대약시(河北 安國, 江西 樟樹, 河南 白泉과 禹州)에 安徽 亳州, 廣西, 玉林, 西安 康復路, 廣州 淸平路, 成都 荷花池, 湖南 邵東이 추가된다.

29)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효종 9년(1658) 경상, 전라, 강원 각 도 관찰사 소재지인 대구, 전주, 원주에 약시를 설치함으로써 藥業이 활성화되고, 각지에서 약상들이 활약하였다. (이민호. 「淸代 祁州藥市에서 활동한 상인의 유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3.)

여 한의학 지식을 보급하였고 약재의 생산과 소비를 과속화 하였다. 명, 청대에도 인쇄 출판업이 발달하여 의약관련 책들을 많이 보급하였다. 셋째, 운송수단의 정비이다. 대구는 임진, 정유 양란이후 경상도 지역의 요충지로 떠오르게 된다. 대구에 경상감영이 생긴 이후 낙동강 수운을 정비하고 운송이 빠르게 되도록 하였다. 대구약령시는 이러한 운송수단의 정비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 명, 청대에도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운하를 보수하는 등 운송수단을 정비하였고 대규모 약시가 성장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 3) 藥市의 문화 활동

고대 중국의 약재 시장에도 축제가 있었다. 중국에는 藥王廟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약재시장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약왕묘가 있다. 사람들은 약왕묘에 와서 건강을 빌고 또 약재시장에서 약재를 구입한다. 대표적인 약재시장인 하북성 안국시(옛날의 祁州)의 비동 약왕묘는 특히 유명하다.<sup>30)</sup> 후한서 열전에 나오는 후한의 개국공신 비동 장군은 의약 인물은 아니지만 죽은 후 안국에 묻혀서 지금도 약왕묘로 추앙받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약왕묘는 의미가 크다.

약왕묘 근처에는 '廟會'라는 약재 교류회가 열렸다. 廟會는 명대 이전까지 초보적인 형태의 정기 약시의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다.<sup>31)</sup>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신령한 기운이 존재한다는 약왕묘에서 신령에게 기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약재를 팔기 위한 약재상들이 몰려들면서 약시가 형성되었다.<sup>32)</sup> 명, 청대 전업약시가 성장하기 이전까지 廟會는 초기의 약재시장 역할을 하였다.

강서성의 樟樹약시에도 약왕묘가 있는데 장수삼황궁이 그것이다. 장수에 있는 삼황궁의 경우, 문화재로서 잘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약재 상인들의 생활 상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戲臺(무대)가 있어 연극과 같은 무대 공연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연은 외지에서 온 상인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것 이었는데 이곳 장수에서 매년 개최되었던 廟會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sup>33)</sup>

전업약시가 성장하면서 약재 상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다. 懷幫은 河南省 북부 懷慶府 출신 약상들이 결성한 약상 조직인데 이들의 활동은 清代 상업사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글을 보면 회경부에 상인들이 오면 그들을 대접했다고 한다. 武漢, 祁州, 樟樹, 禹州와 더불어 전국 5대 약재대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柳園藥材大會에는 河南省 약상은 물론이고 上海, 天津, 홍콩 등 전국 각지의 약상들이 운집하여 '4대懷幫'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성공적인 약재교역을 위해 대회가 열리기 전 懷慶府城의 규모가 큰 藥材行棧들은 자금을 모아 대회 진행 경비로 충당하였는데, 주야로 주연을 열고 각지 상호를 초대하기도 했다. 또한 각 약행 상가는 각지에서 온 상인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懷柳戲班에 요청하여 藥王廟戲樓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sup>34)</sup> 당시로서는 고객과도 같은 지방과 외국의 약상들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축제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sup>35)</sup>

약재시장에서는 약재교류가 주된 활동이었지만 부가적인 활동으로 각종 행사들이 있었다. 이런 행사들이 축제와 같은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중국의 경우 묘회에서 이런 공연 행사를 한 戲臺(무대)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개발에 의해 옛 시장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인데 중국은 고대의 시장터에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던 축제의 무대가 아직 남아있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 2. 조선시대 약령시 문화

### 1) 조선시대의 약재 생산

한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약재 수요와 함께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수요의 증대는 그에 따

30) 비동 약왕묘가 유명해진 것은 다음의 일화에 의해서이다. 송대의 봉건 제후인 진왕이 병을 얻었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신령이 나타나 처방을 해주었고 처방대로 약을 써서 병이 나았다. 진왕은 그 신령이 어느 사람인지 알아보았는데 기주사람이었고 기주에 뭐가 있는지 가보니 비동의 약왕묘가 있었다. 이러한 일화로 비동의 약왕묘는 유명해졌고 기주는 영험한 지역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31) 이민호, 안상우. 「明, 清代 祁州藥市의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 2009;24(4):32.

32) 이민호, 안상우. 「明, 清代 祁州藥市의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 2009;24(4):34.

33) 동의보감기념사업단.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최종보고서』.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0:88.

34) 이민호. 「清代 '懷慶藥商'의 商業 活動과 네트워크 形成-協盛全과 杜盛興을 중심으로」. 明清研究士. 2011;35:324.

35) 회경약상에 관한 글을 보면 약재시장에서 약재만 파는 것이 아니다. 금융업도 발달하여 약재 구입을 위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여러 관련 사업들도 함께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약재시장은 종합적인 상업 활동이 일어나던 공간이었다.

른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약재 생산은 조선 초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약재 생산은 주로 채약인이 채취하거나 奴子로 하여금 재배하게 하였는데, 1432년(세종 14)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각 고을에는 모두 議員이 있고, 生徒가 있고, 採藥人이 있다. 제 때에 약을 캐는 것은 본래 어려운 것이 없다.」<sup>36)</sup>라고 하고 있다. 각도의 주요 州縣에 의원과 의생이 배치되어 있었고, 태평성대를 부르짖었던 세종연간에는 외방에 採藥人<sup>37)</sup>도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계절에 맞추어 採藥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sup>38)</sup> 1439년(세종 21)의 자료에 따르면 「藥材를 재배하거나 採取하는 일들은 노자가 담당하고 官醫院의 정원에 따라서 병자를 구료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태만하여 그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모든 향약과 栽培한 種藥 및 산야에서 자생하는 약재는 계절에 맞추어 채취하고 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베풀어 줄 것이며, 種養하거나 採取한 양이 얼마인지, 施藥을 옹계 베풀었는지, 司憲府로 하여금 每季에 점검하도록 下命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르다.」<sup>39)</sup>라고 하여 일찍부터 조선사회에서 약재 채약과 재배가 이루어 졌으며 또한 병자에게 약을 베푸는 일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사헌부를 통해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432년(세종 14)의 기록에는 內醫院 提請으로 약재를 貢物과 進上<sup>40)</sup>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나타난다.<sup>41)</sup> 進上으로 수납된 약재는 三醫司의 소속 醫員들이 처방에 따라서 조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434년(세종 16)의 자료에 따르면 「약재를 진상하고 조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특별한 법을 세워서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길이 준수하게 하소서」<sup>42)</sup>라고 하여 약재를 특별히 관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약재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것인 만큼 일반 공물과 구분하여 신중히 관리한 것이다. 엄격한 약재 관리는 약재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특별법에 의한 체계적인 약재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고 약재를 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시장 전진화에 기여하고 한의학이 국제적인 명성을 갖는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약령시의 발생배경

조선 후기가 되면 상품유통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시장이 들어서게 되는데<sup>43)</sup> 약재를 취급하는 약령시가 활성화된다.<sup>44)</sup> 약령시의 발생배경으로 주로 5가지 배경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對中國朝貢說이다. 이 설은 일본인 구로마사(馬正巖), 시가다(四方博) 등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한 것으로써, 효종 9년(1658) 청나라에 특산물(약재) 상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왕의 명령으로 약령시를 경상감영 안에 개설하였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大市說이다. 대구약령시대시설도 1922년 구로마사(馬正巖)의 논문 「大市(Mess)로서의 大邸의 令市」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구로마사는 대구약령시의 발생을,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對中 朝貢에서 구하는 동시에 그 성격이 中世後期 서유럽의 대시와 유사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는 對日 輸出說이다. 대일 수출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대구약령시 창설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大同法에 의한 발생설이다. 대동법의 실시로 一般貢賦에 관한 폐해가 타파되었으나 약재는 쌀이나 다른 공물과는 달리 채취, 보존에도 진위, 양부의 식별에도

36) 세종실록. 권 56. 14년 6월 병진 : 「外方各官, 皆有醫院, 有生徒焉, 有採藥人焉, 趁時採藥, 固無難焉」

37) 일반적으로 先代이래 採藥을 主業으로 하는 사람, 藥材에 대해서 얼마쯤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38) 권병탁. 「약령시 연구(2), 15~16세기의 鄉藥業」. 民族文化論叢. 1984;6(1):164.

39) 세종실록. 권 85. 21년 4월 29일 병오 : 「議政府啓: “祖宗設濟生院, 屬之臧獲者, 專爲救療病人也. 近年不顧本意, 藥材種養採取, 視爲餘事, 其奴子定爲官吏根隨, 病人救療, 慢不加意, 遂使我祖宗良法美意, 徒爲文具, 甚爲未便. 願自今根隨及各處, 毋得定送, 諸般鄉藥, 並皆種養, 山野自生藥材, 趁節採取, 凡有病人, 隨其所求, 無不施之. 其藥材種養採取多少, 施藥勤慢, 令憲司每當季月檢點.” 從之」

40) 진상은 각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에 상납한다는 점에서 흔히 공물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공물과 전혀 별개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공물이 각 군현 단위로 년 1차례 상납하는 歲貢이라고 한다면, 진상은 본래 세금이라기보다 국왕에 대한 外官, 즉 지방장관의 禮獻으로서 국왕의 御膳을 비롯하여 궁중의 제향, 약재, 빈객접대 등에 쓰이는 물품을 월 1차례 상납하였던 제도이다. 부과 대상도 형식상으로, 각 道 단위였으므로 상납 주체는 도 단위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즉 감영, 병영, 수영이었다. 이재룡. 「진상」. 『한국사』 24권 (조선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과천:국사편찬위원회. 1994:469-470.

41) 세종실록. 권56. 14년 6월 29일 병진 : 「今考各道所納貢物, 京畿則比他道雜貢頗多. 平安, 咸吉道則近因支使臣, 事尤煩劇, 其餘各道, 則濟生院, 典醫監, 惠民局藥材及各司所納貢物甚多, 加定藥材未便. 請上項各道所納藥材, 勿以貢物施行, 以進上所餘及各官醫院所蓄. 每年依式上納.” 從之」

42) 세종실록. 권63. 16년 정월 무신(1월 30일) : 「臣願進上劑藥諸事, 各別立法, 令習醫者永爲遵守」

43) 우리의 고유한 상업체제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朝廷에서 公廊(商店)을 지어 제공하는 시전과 朝廷에서 공인된 시전인 으로서 國役을 담당하는 육의전이 있었고, 地方商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客主 및 旅閣이 있었다. 또 地方鄉市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行商하던 負襍商(등짐장수와 붓짐장수)과 朝鮮後記 壬辰倭亂 이후 大同法의 실시에 따른 御用的 貢納請負人인 貢人들이 출현하여 商業活動이 보다 활발해졌다. 손영석. 「조선시대의 약령시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학회. 1993;6:127.

44) 한의학이 동양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문적, 제도적 중심 의학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것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藥令市이다. 藥令市는 韓藥材를 비롯한 한의학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으로 조선시대 한의학의 위상과 성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약령시는 시장의 개념을 넘어 시대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수기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합 공급 거리에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관의 편리에 의한 편중정책이기는 하지만, 대동법실시에 따른 일종의 관민타협정책으로 약령시가 대구에 개시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대구지방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이 발생했다는 自然發生說이다. 그 외 의견으로 命令說이 있다. 이 설은 조선 효종년간(1650~1659)에 공물약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官府의 명령에 의하여 市市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sup>45)</sup>

對中國朝貢說의 경우, 병자호란 이후 인삼을 제외한 약재가 조공되거나 수출된 기록이 없고, 있더라도 미비하며, 반대로 중국 약재가 唐村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것을 볼 수 있어 설득력이 희박해진다.<sup>46)</sup> 또한 이것은 조선을 중국의 屬國으로 보고 珍貴한 藥材를 효과적으로 進貢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령시의 탄생배경을 설명하는데 일본학자에 의한 植民主義 觀點의 주장이다.<sup>47)</sup> 命令說도 설득력이 희박하다. 아무리 중앙집권적 왕권국가라고 하지만 대규모 시장이 왕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왕의 명령으로 정책적으로 시장을 육성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sup>48)</sup>

여러 견해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大同法에 의한 발생설이다. 대규모 약령시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는데, 17세기 경상도 지역은 타 지역보다 대동법 시행이 늦어졌다.<sup>49)</sup> 그 이유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여 잔존한 구세력(防納制)의 저지행위 때문이었다. 방납제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각급 관인과 京私主人 등은 이 지역에서 대동법이 실시되는 것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상도민들은 대동법의 시행을 원했고 조정에서도 경상도의 실정을 예의주시하였다. 1677년(숙종3) 도승지 李元禎의 ‘영남 민

역이 타도보다 배나 무거워 백성들이 대동법실시를 갈망하고 있으니 양호의 전례대로 실시해 달라’는 전언이 어전에서 允許되었다. 논밭 매 1결을 표준으로 하여 沿邑에서는 쌀 12말을, 山郡에서는 무명이나 삼베를 상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년에 큰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난 1679년(숙종5)부터 경상도 지역에서 역사적인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경상도는 사회, 경제적 발전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동안 현물형태인 온갖 공물을 방납형식으로 수납하던 것을 쌀 또는 천으로 정하였으므로 수납량이 과격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법은 간편해졌다. 농민들의 이윤 동기는 획기적으로 자극되어 생산의욕이 왕성해졌다. 경상도와 각 군현 당국의 입장에서 세수가 증가하였으며 예전의 부조리한 징수는 감소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경상도 지역에 시장경제가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종래의 수납용 공물은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sup>50)</sup>

원래 경상도는 낙동강을 分界線으로 左, 右道로 분리하였다 다시 통합하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분리했을 경우 상주와 경주에 각각 우도와 좌도의 관찰사가 留營하였다. 그런데 임진, 정유 양란을 겪는 사이에 대구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일관계에 있어서 요지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1599년(선조 32)에 좌우도를 통합하고 1601년(선조 34)에 대구가 처음으로 監營이 되었다. 통합된 경상감영은 낙동강을 활성화시켜 경상도 북부에서 생산되는 곡식, 직물, 약재를 적재하여 남하하는 등 물자의 유통을 활발히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658년(효종 9)에 대구읍성 안의 1,000여 평 객사 앞뜰에서 최초로 藥令市가 개설되었다.<sup>51)</sup>

다시 말해 대동법 시행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시장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임진, 정유왜란 이후 대구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대구는 경상도 지역의 정치, 경제적

45) 이러한 견해 중 어느 것도 약령시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문헌이나 기록이 없는 상태이며 모두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꼭 한 가지 이유에서 약령시가 유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권병탁, 「약령시 연구(IV)-발생, 생명설의 비판」,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1985;6:86.

46) 김남일, 「제7장 조선후기의 의학」, 김남일, 김인락, 김적, 박찬국, 신영일, 신순식 외, 『한국한의학사 재검토편(하)』, 서울:한국한의학연구소, 1995;80.

47) 권병탁, 「약령시 연구(IV)-발생, 생명설의 비판」,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1985;6:98.

48) 권병탁에 따르면 영시는 관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절‘수’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연다는 계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약령시는 역대로 春秋 양철에 개시되며 약재 공물도 주로 兩季節에 收納되었다. 일부의 한약재는 가을에 採取收穫하여 곧바로 말리는 사이에 봄이 되고 대부분 의약재는 여름, 가을에 채취 되어 늦가을에 完品化하기 때문이다. 즉 봄과 가을은 사계절 중 약철이라는 것이다. 또 『輿地圖書』, 古典道誌, 邑誌의 進上條에는 正月令, 二月令, 三月令 등 ‘令’字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농가월령가의 ‘令’과 三月令, 春令, 秋令의 ‘令’도 한결같이 時概念이므로 약령시는 영시라고도 하고 봄에 열리는 것을 ‘春令時’, 가을에 열리는 것을 ‘秋令時’라고 하는 것은 봄철 약시장 가을철 약시장이란 뜻이며 계절에 따라 열리는 시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 했다. 권병탁, 「대구약령시의 보건경제사적 고찰」, 『대구약령시론』, 경산: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105-121.

49) 경기도(1608년), 강원도(1623년), 충청도(1653년), 전라도(1662년), 경상도(1679년) 순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50) 권병탁, 「약령시 연구(VI), 18세기 藥令市 發展의 背景」,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85;5(1):102-107.

51) 경상감영이 대구에 정착한지 6년이 지난 1607년(선조40) 2월에는 下三道(충청, 전라, 경상) 監營이 폐지되었다. 까닭은 확실하지 않으나 자료에 따르면 監司의 용도에 절도가 없어 道内の 각 읍에 폐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61년 동안 慶常監司는 일정한 留營地없이 각 고을을 巡察하는 觀察使役만을 맡은 듯하다. 따라서 任義伯 監司가 1658년(효종9)에 약령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대구도호부 官衙의 한적한 어떤 공간, 예를 들어 客舍앞을 빌려 썼을 뿐일 것으로 생각된다. 권병탁, 「약령시 연구(IV), 18세기 藥令市 發展의 背景」,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85;5(1):108.

중심지로서 낙동강 수운이 발달하였고 많은 물자들이 모여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경상도 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산과 소백산 등이 제공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약재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일반 작물과는 달리 약재는 그 진위를 판별해야 하고 변질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 등 특수성을 가진 상품이므로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시장이 형성된다.<sup>52)</sup> 이러한 약재들이 모두 대구지역으로 모이게 되어 대구약령시가 발달하였고 전주, 원주 등 관찰사의 소재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sup>53)</sup>

### 3) 한방지역축제 문화원형으로서의 약령시

지금까지 약령시의 역사와 발생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방지역축제는 약령시의 역사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사업이다. 그 속에 한의학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교류하는 약령시에는 항상 활기와 볼거리가 넘쳤을 것이다. 원래 과거의 장터는 경제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전통이 이어지는 장소였다. 사람이 많아야 장터가 제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을 것이다.<sup>54)</sup>

대구 약령시, 제천 약령시 같은 전통 있는 대형 약령시에서 장을 열면 지방의 약재 상인들이 약재를 구입하러 왔을 것이다. 약령시에서는 물건을 사러 온 상인들이 고객인 셈인데 물건도 보여주고 또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 상대자를 대접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먼 길 와서 약재를 사니 거래하는 물건 량도 상당했을 것이고 이들을 회유하기 위하

여 공연도 보여주고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약령시에서는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과 타 지방에서 온 상인들을 위한 공연, 행사 등 문화 활동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이 한방지역축제의 원형이 된다.

약령시의 발달은 醫藥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국가권력이 의료혜택과 약재를 관리하던 것이 향약의 발전과 약재 거래의 활성화로 민간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동의보감 이후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한의학은 더욱 대중화되었다. 대동법은 약재 생산을 촉진하였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sup>55)</sup> 민간에서 약재를 이용한 의료 혜택이 가능해진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약령시에는 더욱 활기가 넘치고 삶에 대한 건강한 욕망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약령시에는 조선의 약재를 구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외국 상인들도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한다. 국제적인 무대이기도 한 약령시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여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약령시의 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료를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어느 골목에서 약령시가 개설되었는지도 파악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약령시 터를 방문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장소를 통해서 과거로의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56)</sup>

## 3. 한방지역축제의 정체성과 목적

### 1) 한방지역축제의 정체성

한방지역축제는 지역에 스며있는 한의학의 역사와 전통

52) 이민호, 「명 중기 민간 의약업의 성장과 ‘棄儒爲醫」, 중국사연구, 2008;55:152.

53) 이와 같이 약물을 파고 사는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령시가 이 시기에 생성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의학의 발전 못지않게 당시의 사회경제적 動因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변화기운에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으로 상공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자유상인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국적으로 場市(鄕村의 5日場)가 점차 확대되어 상품유통망이 형성되고 이것이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전시대까지 이어졌던 물물 교환적 자연경제체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화패 경제체제로 경제구조가 바뀌게 되었음을 뜻한다.

54) 시장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또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파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진다. 과거에 시장은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문화적 전통이 이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장에 간 것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듣기 위하여 장에 가기도 했다. 장에 사람이 들끓지 않으면 장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장터의 상인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고 직접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장이 들어선 상태에서 다른 편에서는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남사당놀이, 보부상놀이 등의 민속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모두다 구매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 행사들이 말하자면 시장축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찬, 「동구 전통시장 및 시장축제에 관한 논의 서설」, 지역학연구, 2003;2(1):215.

55) 동의보감에는 단방에 관한 내용을 실어, 약재 각각의 처방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한 가지 약재를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리 하였다. 단방은 약재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56) 시간은 보통 우리의 장소 경험의 일부이다. 이 경험들은 반드시 끊임없는 변화나 계속성과 묶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 그 자체는 과거의 경험과 사건의 현재적 표현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의 현재적 표현이다. Relph, E.C, 심승희, 김덕현, 김현주 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논형, 2005:85.



문화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한의학의 역사, 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은 한약재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지만 한의학의 전통문화가 있고 유익들이 배출되고 관련된 설화나 전설 등 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방지역축제가 정체성이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학과 관련하여 지역의 역사와 전통, 고유의 문화 그리고 지역민의 호응이 축제와 어우러져야 한다. 유사한 축제가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져야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축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독창성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한의학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학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한방지역축제는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정체성과 독창성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방지역축제는 웰빙(well-being)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웰빙의 뜻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안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sup>57)</sup> 한국어연구소에서는 웰빙의 정의를 순수 우리말인 “참살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웰빙을 어의적으로 분석해보면 잘(well) 존재(being)하는 것이다. 웰빙의 개념이 사회 속에서 나타난 과정을 살펴보면, 20세기 초에 등장한 서구 사회의 대안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기계화된 현대문명과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대한 반성이 전개되었는데 웰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이러한 사회 운동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채식주의, 생태주의, 슬로우 푸드 운동 등으로 개인의 건강을 추구하고 친환경성을 강조한 것이다.<sup>58)</sup>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식품, 가전, 건설 등의 마케팅에 주로 활용되었다.<sup>59)</sup>

몸과 마음이 안녕한 상태가 웰빙을 의미한다면 한의학의 陰陽五行說은 웰빙에 대한 한의학적 시각을 보여준다. 陰陽五行으로 疾病을 볼 때 사람의 병은 크게 內傷과 外感으로 나뉜다. 外感은 風寒暑濕燥火의 六淫에 의한 손상을 말하고 內傷은 喜怒哀樂愛惡慾의 七情에 의한 손상을 말한다. 보통 병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과식, 과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 사람들이 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七情을 內傷의 원인으로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란 內外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內에서 정신을 藏하여 우리 몸을 조절하는 부분과, 外에서 氣와 血을 가지고 몸을 기르고 운영하고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內外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든지, 또는 內나 外 한쪽이 어떤 이유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sup>60)</sup>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음양이 상대적인 평형을 유지해야 몸의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고 흔히 생각하는 식생활로 인해 생기는 병보다는 마음에 의해 생기는 병이 더 많다고 생각하였다. 요즘 표현으로 스트레스(감정 상태)를 칠정(七情)으로 표현했으며, 칠정의 지나친 변화가 오장육부의 기혈을 변화시켜 병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웰빙은 한의학에서 오래 전부터 강조해온 마음과 몸의 조화로운 상태에서 비롯되며, 정신과 육체가 평형을 유지할 때 건강도 가능한 것이다.

관광에 있어서도 웰빙 관광이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어 최근의 젊은 직장인들은 고소득이나 명예보다는 여유로운 개인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웰빙 관광은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기존 관광과는 차별화 되고 있다. 어린아이들과 10대들은 웰빙 체험을 가족들과 가짐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주부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르거나 웰빙 관광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 실버층은 명상이나 휴양림 방문으로 인한 인생의 새로운 웰빙 관광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웰빙은 무엇을 먹고, 입고, 쓰고,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친환경적인 실천 개념으로서 공동체적 차원의 건강한 사회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sup>61)</sup> 한방지역축제는 한의학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철학적 사유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명상, 산림치유<sup>62)</sup> 등의 프로그램으로 웰빙 관광이 될 수 있다.

57) 세계보건기구(WHO, 1948) "Health is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but a state of completely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58) 전영욱. 『웰빙 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5. <http://m.seri.org/doc/mov03.html?menu=&menucd=0101&pubkey=db20050503001&npage=1&flag=0>  
59) 서구사회에서의 웰빙은 철학적 사고, 혹은 사회대안 운동으로서 존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품 마케팅을 위한 소재로 주로 이용되는 모습이다. 웰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상업주의에 의해 가려진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60) 박찬국. 『한의학 특강』. 서울:집문당. 2008:171-174.  
61) 서일교, 김진원. 「관광학 관점에서의 웰빙의 개념적 정리와 웰빙관광상품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학논집. 2005:37:205.  
62) 산림치유는 산림 속에 피톤치드 등 여러 가지 인간에게 유익한 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기들이 인간에 작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수목 사이의 기의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에서 淸氣를 취하고 내부의 濁氣를 내보내는 것이다. 이는 곧 도가 양생법 중의 “呼吸精氣”, “吐故納新”과 일맥상

## 2) 한방지역축제의 목적

한방지역축제의 목적은 첫째, 한의학 역사와 전통의 복원이다.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만 한방지역축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의학적 전통이 깊은 지역, 과거 약재 유통 시장이 형성된 적이 있는 지역, 그리고 뛰어난 의원이나 儒醫가 배출된 지역,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 참가자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축제는 계급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통합한다.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에서는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인 생활양식이었다. 공동노동으로 지친 육신과 마음의 피로를 축제를 즐기며 함께 해소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가 되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공장노동자가 되었고 분업과 개인주의로 공동체는 와해되어 갔다. 공동체 속에서는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생산수단으로 전락했고 인간 소외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농경사회의 생활양식이었던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동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과거의 축제와 현재의 축제가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지는 않는다. 과거에 비하여 유희적이고 관람적인 성격으로 변한 현대의 축제에서 공동체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축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공통적인 관심과 목적을 가진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축제에 몰입할 때 하나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축제를 통한 공통적 관심과 몰입, 그리고 그것이 주는 사회적 연대감은 훼손된 공동체성을 일깨워주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sup>63)</sup>

건강과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주제인데 한의학의 생명존중과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몸의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까지 이어지고 있다.<sup>64)</sup>

한방지역축제에 관하여 인문학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한의학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학문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축제가 가진 역사성의 고찰이다. 약령시의 발달은 동의보감 이후 조선후기 의학지식의 보급과 의료의 보편화를 의미한다. 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축제의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전통 약령시 문화를 충실히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가치 있고 매력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쇠퇴해가는 약령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 III. 결론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양의 지혜이고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은 고유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특히 서구의학으로 대표되는 현대 의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의 문화적 자산인 한의학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축제는 장소성이 강조되는 체험활동으로서 이를 위한 가장 효

통 한다. 이 「呼吸精氣」가 바로 도가양생술에서 인간과 자연이 교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창현, 「산림치유에 대한 도가양생방법의 고찰」, 도교문화연구. 2011;35:249.

63)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현대에도 사람들이 축제 속에서 몰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상징체의 형성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사회적 토털의 형성은 현대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것은 전통이라는 문화적 속성과 명예라는 사회적 속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토털의 상징은 집단적 몰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된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로부터 뒤트캠이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은 모든 의식들은 사회적 연대감을 양양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도 뒤트캠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연대를 통하여 조화로운 하나로 통합되는가에 주목하였다. 이경은, 「고창모양성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뒤트캠의 의례이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2010;14:95.

64) 이어령은 한의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요즘 한국 의학은 공장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계과학적인 의학이나 심지어 다량 생산주의의 공장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대학 병원이나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찾아가면 5분 이상 진찰해 주는 데가 있어요? 기다리는 줄이 늘어져 있어도 흘끔 보고는 ‘가라’, 다음 사람도 흘끔 보고 ‘가라’ 그러면 일주일을 다녀도 왼쪽 눈이 아픈지 오른쪽 눈이 아픈지도 모르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죠, 하루에 수천 명의 환자를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Human Communication이 아니죠, 점점 의술이 기술처럼 전락한다는 것을 의술을 인술로 보지 않고, Communication으로 보지 않고 Technology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장기계는 Technology로 제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테크놀로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인간을 단순한 기계처럼 다루고 시스템 중심으로 했던 의학 과학은 20세기에 끝나고 21세기에는 신경과 DNA 생체 쪽으로 돌아갑니다. 더불어 한의학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전수된 지혜에 의해서 개발된 한방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의학은 기계기술이 아니라 지식기술입니다.” 이어령, 「한의학,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다」, 이어령, 소광섭, 오명, 이상희, 서정선, 김용욱 외. 『21세기 한의학을 위하여』,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2009:84-85.

과적인 무형의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축제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방지역축제도 비슷한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한방지역축제는 지역의 한의학 역사, 문화 자원을 콘텐츠로 구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한의학적 가치와 動因이 빠져있는 채 행사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축제의 원형을 이해하고 한방지역축제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복원하는 것은 축제의 발전과 한의학 역사, 문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약령시를 중심으로 한방지역축제의 문화원형과 역사성을 고찰하였다.

한방지역축제는 전통 약령시를 그 문화원형으로 한다. 17세기에 성장하기 시작한 특수 시장인 약령시는 우리 역사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화폐경제와 상품경제가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분질서의 변화까지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였는데 약령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령시의 성장으로 민간의료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온 의료 권력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약재를 구입하여 치료에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민간의료의 보급과 약령시의 성장은 근대로의 이행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약령시에서는 많은 문화 행사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약재를 구입하여 병을 치료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을 하였기에 약령시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통 시장에서 시장 주인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였고 지방의 약상들이 와서 약을 구입할 때 약령시에서는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공연과 같은 문화행사를 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것은 중국은 藥市에서는 이런 활동을 한 戲臺(무대)가 아직 남아 있어 역사의 현장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에 의해 약령시들이 대부분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 그 역사의 현장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방지역축제를 통한 전통 약령시의 장소성의 회복과 이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2000년대 이후 한류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류는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산업 전반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한국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한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적인 문화 공감과 교류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생명존중사상과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한의학은 아시아적인 공감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함께 가진다. 문화를 통해 한의학을 세계 속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데 이미 허준,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 세계인들은 한의학에 대하여 친숙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축제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외국인의 방문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방지역축제가 한의학의 한류를 주도하는 전통의학 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Relph E.C, 심승희, 김덕현, 김현주 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논형. 2005.
2. 김남일. 「제7장 조선후기의 의학」. 김남일, 김인락, 김적, 박찬국, 신영일, 신순식 외. 『한국한의학사 재정립(하)』. 서울: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3.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유의열전』. 파주:들녘. 2011.
4. 김영순, 구문모, 조성면, 이미정, 오장근, 왕치현, 등.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성남:북코리아. 2010.
5. 김영순, 최민성, 강운주, 김상숙, 박지선, 백승국, 등. 『축제와 문화콘텐츠』. 서울:다할미디어. 2006.
6. 김홍열. 『축제의 사회사』. 파주:한울. 2010.
7. 박찬국. 『한의학 특강』. 서울:집문당. 2004.
8. 윤선자. 『축제의 문화사』. 파주:한길사. 2008.
9. 이어령. 「한의학,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다」. 이어령, 소광섭, 오명, 이상희, 서정선, 김용옥 외. 『21세기 한의학을 위하여』.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2009.
10. 이재룡. 「진상」 『한국사』24권(조선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파천:국사편찬위원회. 1994.
11.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명의 류의태의

- 자취 연구». 영남학. 2009;16:379-415.
12.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한국의사학회지. 2010;23(1):11-22.
  13. 권병탁. 「대구약령시의 보건경제사적 고찰». 『대구약령시론』. 경산: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14. 권병탁. 「약령시 연구(2), 15~16세기의 鄕醫藥». 民族文化論叢. 1984;6(1):151-173.
  15. 권병탁. 「약령시 연구(VI), 18세기 藥令市 發展의 背景」.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85;5(1):101-122.
  16. 권병탁. 「약령시 연구(IV)-발생, 생명설의 비판».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1985;6:84-107.
  17. 김귀자, 이선경. 「한방축제의 장소마케팅이 지역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구한방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컨벤션 연구. 2013;34:137-158.
  18. 김기정. 「문화유물론을 통해 본 호이징아 놀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9. 김종박. 「明, 淸 시기 농촌경제와 市鎮」. 詳明史學. 2006;16:409-430.
  20. 김현철, 홍경완. 「축제 감정의 인지적 평가모형에서 관여수준의 역할」. 관광연구. 2007;22(3):143-162.
  21. 민찬. 「동구 전통시장 및 시장축제에 관한 논의 서설」. 지역학연구. 2003;2(1):203-221.
  22. 박상영, 안상영, 권오민, 한창현. 「한의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현황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15(1):49-54.
  23. 서일교, 김진원. 「관광학 관점에서의 웰빙의 개념적 정리와 웰빙관광상품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향논집. 2005;37:197-226.
  24. 손영석. 「조선시대의 약령시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학회. 1993;6:125-156.
  25. 송학준, 문지효, 최상수, 이충기. 「한방의료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 연구. 2013;22(3):221-233.
  26. 신국원. 「대중예술의 통합적 비평을 위한 접근」. 철학논집. 2005;10:111-147.
  27. 신창렬, 송학준, 이충기. 「축제 품질, 축제 주제 인식, 지각된 가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연구 :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사례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2(7):346-362.
  28. 심규원, 이주희.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객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 약령시 한방축제를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0;14(1):31-39.
  29. 안상우. 「제천약령시 전통과 의약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9;12(2):271-311.
  30. 윤용세, 정성화. 「한약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2013;13(2):21-28.
  31. 이경은. 「고창모양성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뒤르캄의 의레이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2010;14:87-108.
  32. 이민호. 「명 중기 민간 의약업의 성장과 ‘棄儒爲醫」. 중국사연구. 2008;55:145-174.
  33. 이민호. 「淸代 ‘懷慶藥商’의 商業 活動과 네트워크 形成 -協盛全과 杜盛興을 중심으로」. 明清研究. 2011;35:313-337.
  34. 이민호. 「淸代 祁州藥市에서 활동한 상인의 유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3-23.
  35. 이민호, 안상우. 「明, 淸代 祁州藥市の 成長과 ‘藥王廟」. 대한본초학회지. 2009;24(4):31-37.
  36. 이선경, 윤세남. 「축제 방문객의 체험동기가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한방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컨벤션 연구. 2013;35:85-101.
  37. 장은경. 「캐릭터 마케팅을 활용한 한방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2;10:216-228.
  38. 정우철. 「지역축제에서의 이해관계자간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 분석 - 대구 약령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010;5(1):327-347.
  39. 정창현. 「산림치유에 대한 도가양생방면의 고찰」. 도교문화연구. 2011;35:239-262.
  40. 조영현. 「大運河와 徽州商人-明末, 淸初 進, 揚 地域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1. 최승국. 「지역관광축제 참가자 만족도 연구-제천한방축제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2006;2(1):55-70.
  42. 김남일. 「한의학은 의학이자 문화입니다」. 이코노미조선. 118호. 2014.
  43. 동의보감기념사업단.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최종보고서』.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44. 진영욱. 『웰빙 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5. <http://m.seri.org/doc/mov03.html?menu=&menucd=0101&pubkey=db20050503001&npage=1&flag=0>
  4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 2006. [https://www.kcti.re.kr/03\\_1.dmw?method=view&reportId=100&isSearch=true&reportCategory=-1&reportTitle=true&userName=true&reportContent=true&value=%C7%D1%B1%B9+%C1%F6%BF%AA%C3%E0%C1%A6+%C1%B6%BB%E7%C6%F2%B0%A1+%B9%D7+%B0%B3%BC%B1%B9%E6%BE%8+%BF%AC%B1%B8+%C3%D1%B0%FD%BA%B8%B0%ED%BC%AD&reportSeq=490&pageNum=1&groupNum=1](https://www.kcti.re.kr/03_1.dmw?method=view&reportId=100&isSearch=true&reportCategory=-1&reportTitle=true&userName=true&reportContent=true&value=%C7%D1%B1%B9+%C1%F6%BF%AA%C3%E0%C1%A6+%C1%B6%BB%E7%C6%F2%B0%A1+%B9%D7+%B0%B3%BC%B1%B9%E6%BE%8+%BF%AC%B1%B8+%C3%D1%B0%FD%BA%B8%B0%ED%BC%AD&reportSeq=490&pageNum=1&groupNum=1)